

金正秀 의원, 제25대 보사부장관 취임

원만한 보사행정 수행 기대

제25대 보건사회부장관에 김정秀 민
자당 의원(53세)이 취임했다.

지난 3월 17일자로 취임한 김정秀
신임 보사부장관은 부산약대를 졸업,
부산대 경영대학원과 서울대 행정대
학원 발전정책과정을 수료했으며,
11~13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자
당통합 전에는 민권당 사무총장을 역
임하기도 했다.

금장관은 국회 운영위원, 예·결산
특별위원, 민추협 상임위원, 신민당 창
당 발기인, 신민당 원내부총무 등으로

활동해 왔다.

또 금장관은 약사출신이면서 국회
보사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보사
업무에 폭넓은 식견을 갖고 있어 앞으
로 원만한 행정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신임 금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성실한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사회보장을 해주는 보사행정이 될수 있
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취임사 : 6P에 수록)

“가족 성인병의 예방과 관리”

4월 공개강좌,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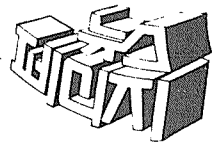
터 홍보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가족 성인병의
예방과 관리”로, 가정에 있어서의 건강
관리의 중요성, 요령, 성인병과 가족 건
강 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0일에 있었던 3월 공
개강좌에서는 경희대 한의대 안덕균 교
수가 “성인병과 영양관리”에 대한 강의
를 실시했다.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4월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부



최우수상에 광주·전남지부

우수상에 충북, 대전·충남지부가 수상

健協이 실시한 '89년도 지부 운영 평가에서 광주·전남지부가 최우수상을, 충북, 대전·충남지부가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사업실적의 향상, 직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난 '87년부터 실시되어 온 이 운영 평가는 각 시도지부의 사업실적, 세입실적 및 제반 목표관리 결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실시되어 해당지부에는 표창장과 시상금이 수여 되었다.

한편 나머지 지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부산·전북·경남지부에는 장려상을, 서울·대구·인

천·경기·강원·경북·제주지부에는 노력상을 수여했다.

健協은 또, 지난 한 해 동안 지부 실적 거양에 기여한 직원에게도 표창장을 시상했다.

개인 표창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재권(충북지부 검사소장)
- 정완섭(광주·전남지부 3급 임상병리사)
- 윤달식(대전·충남지부 3급 임상병리사)
- 서영희(광주·전남지부 4급 임상병리사)

건강관리 강조 주간 설정 등 다채로운 행사

제18회 보건의 달 행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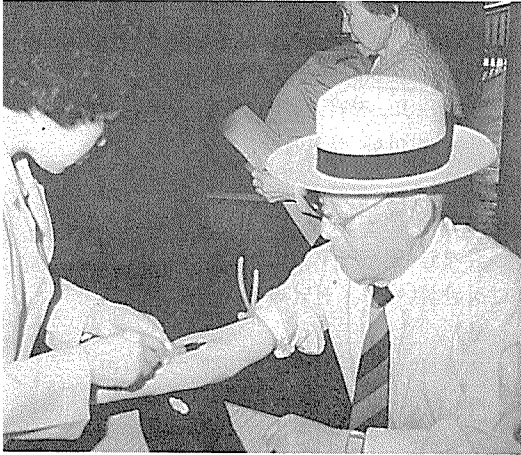
健協은 제18회 보건의 달 및 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 보건 의식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 전개할 예정이다.

4월 16일부터 21일까지를 건강관리 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가두 무료 건강상담소를 설치하여 건강상담, 기생충 검사 및 투약,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검사, 혈액형 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계몽용 유인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비디오, 슬라이드 자료를 활용한 건강생활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등 해당지역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계몽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올해 WHO의 세계 보건의 날 주제인 “우리의 지구, 우리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관리를 위해 국민으로써 해야 할 일도 계몽하여, 환경보존을 통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주민 등 총 2만여명 당뇨검사



健協 서울특별시지부가 사회복지법인 세림복지재단으로부터 당뇨병 발굴 검사사업을 의뢰받아 혈당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검사사업은 저소득층, 주민, 학생, 사업장 근로자 등의 당뇨병을 조기발견, 치료하는 한편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2천년대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88년에 시작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 관내 저소득층 주민, 학생, 사업장, 근로자 등 총 2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 검사사업은 건협 서울특별시지부가 해당 사무소, 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등에 출장,

서울지부에 세림복지재단서 의뢰

순회검사를 계획이다.

업무능률 향상 위한 토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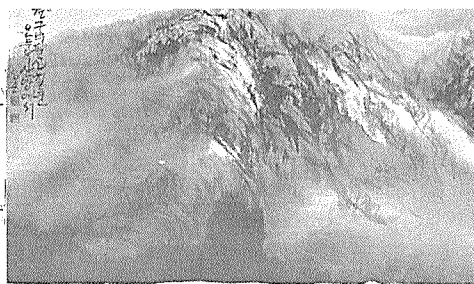
'90년도 서무직 연수교육 실시

健協은 '90년도 서무직 연수교육을 지난 2월 22일부터 2박 3일간 부산에서 실시했다.

'90년도 본회 관리 운영 제반 실무를 분석, 평가, 토의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협회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전국 각 시도지부에서 60여명의 서무, 기능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협회 운영 현황 및 서무 업무의 중요성, '90년도 예산 운용 등에 관한 교육 외에 경성대학교 상경대 전상호 학장의 "직장인의 사명감"에 대한 정신교육이 있었으며, 업무 개선 및 일원화를 위한 연구발표와 실무자간의 의견교환이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교육 첫날, 이관영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무직의 중요성과 협회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말하면서, 『협회인의 인화단결에 있어 서무직 담당자는 누구보다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직원들의 의견에 항상 관심을 갖고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心村 黃大英씨 동양화 작품전

동양화가 心村 黃大英씨(45세)가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풍양신문사 문화센터(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청하B/D 2층)에서 작품전을 가졌다.

산·강물·나무가 있는 풍경 등을 소재로 한 수묵화를 주로 그렸던 心村은 이번 개인전을 통해 이제까지의 일반적 선호의 대상이었던 남호풍의 관념적 산수에서 탈피, 실경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감정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그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새롭게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그의 작품은 맑은 빛과 중후한 색감이 조화가 특징이며, 먹의 쓰임새가 힘있게 풀어져 인간의 감정이 자연 속에 용해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의 회화적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이를 통해 옛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변형하려는 새로운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心村은 지난 '78년부터 '85년까지 건강소식의 표지화를 선정하여 제공한 바 있다.

〈사진 : 황대영씨 작품 중 「고요」〉

◎ 健協 인사이동

健協은 각급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을 지난 3월 24일자로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괄호 안은 전직)

- 본부 기획부장 정순표(본부 감사실장)
- 본부 사업부장 원용복(본부 기획부장)
- 본부 감사실장 최익현(본부 사업부장)
- 본부 대기근무·서울지부 파견근무 서기홍(서울지부 사무국장)
- 서울지부 사무국장 장용준(경기지부 사무국장)
- 경기지부 사무국장 이 순(경북지부 사무국장)
- 경북지부 사무국장 이회봉(충북지부 사무국장)
- 충북지부 사무국장 직무대리 김봉수(본부 총무과장)

- 본부 총무과장 이종희(서울지부 총무과장)
- 서울지부 서무과장 정갑천(인천지부 서무과장)
- 본부 조사연구과장 직무대리 박준영(본부 조사연구부 계장)
- 인천지부 서무과장 직무대리 임옥숙(본부 총무부 계장)
- 서울특별시지부 계장 이흥호(인천직할시지부 계장)
- 인천직할시지부 계장 윤희동(서울특별시지부 계장)
- 본부 총무부 계장 문창섭(본부 총무부 주임)
- 대구지부 계장 이은채(대구지부 주임)
- 전북지부 계장 이혜영(전북지부 주임)
- 광주·전남지부 계장 이현숙(광주·전남지부 주임) (P 59 에서 계속)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도 모든 사태는 반대로 전개 되었을 지도 모른다. 아니 최소한 어느 한 부분만은 반대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바로 편법이다. 지금은 어느정도 사회현상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같은 편법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원칙에 충실한 사람을, 융통성이 적고 적응능력이 부족하다느니 자기관리에 미흡하다느니 한다.

반대로 편법의 구사에

능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으로 대우받는가 하면 원칙의 수호는 강한 입장의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덕목일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지 않은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포도나무는 포도를 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원칙의 수호가 사회기강 확립의 질서 유지의 기본이라는 인식일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네 사회의 생활이 계속되어져서는 안되겠다.

선비정신도 우리의 것임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

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칙과 편법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기준은 자기의 양심과 윤리도덕과 사회 법과 여론 앞에 정정당한 것인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즉 이 선택의 결과에 확실한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선택은 자유이고 결과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선택과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은 자기 양심이 심판하고 여론이 심판하고 법이 심판하고 역사가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전라북도지부 사업과장>

→49페이지의 계속

- 경남지부 계장 이춘성(경남지부 주임)
- 서울지부 3급 임상병리사 안상용(서울지부 4급 임상병리사)
- 인천지부 3급 임상병리사 유재영(인천지부 4급 임상병리사)
- 대전·충남지부 3급 임상병리사 신미경(대전·충남지부 4급 임상병리사)
- 전북지부 3급 임상병리사 공우현(전

북지부 4급 임상병리사)

- 본부 감사실 주임 박균중(본부 조사연구부 주임)
- 본부 사업부 주임 변성식(본부 사업부 서기)
- 본부 조사연구부 주임 백승헌(본부 조사연구부 서기)
- 전북지부 기능 1급 기사 이동진(전북지부 기능 2급 기사)

이상 27명